

2014년

수산업관측사업(대중성 어종) 발전방안 워크숍

2014. 11. 7(금)~8(토)

목 차

I. 회의 개요	1
1. 목 적	1
2. 개 요	1
3. 주요 내용	1
4. 워크숍 일정	2
5. 참석 대상자	3
II. 대중성 어종 수급 및 가격 동향 조사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	4
III. 수산물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한 가격안정대제도 도입 방안	11
Memo	25

I. 협의회 개요

1. 목 적

-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중성어종 수급 및 가격 동향 조사 사업과 수매 비축 사업 등 수급 조절 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 및 발전 방안 모색

2. 개 요

- 일 시 : 2014. 11. 7(금) ~ 8(토) 2일간
- 장 소 : 통영(경상남도 통영시 통영베이콘도)
- 주 최(관) :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수산업관측센터)
- 참석대상 : 해양수산부, KMI 및 관련 기관 등 관계자 25명 내외
 - 해 수 부 : 유통가공과 업무 담당자
 - 관측센터 : 수산업관측센터 센터장 및 연구원
 - 수 협 : 수협중앙회, 강릉, 속초, 죽변, 후포, 목포, 한림, 성산포, 서귀포, 대형선망, 기선권현망수협 관계자

3. 주요 내용

< 주제발표 >

- 수산업관측(대중성어종)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KMI)
- 수산물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한 가격안정대 도입 방안(KMI)

< 토 의 >

- 대중성어종 관측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 및 발전 방안
 - 대중성 어종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개선방향 도출(품목 도입 등 관련)
- 수급관리정책 강화를 위한 가격안정대 도입 방안 모색
 - 도입 품목 및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 향후 확대 방향

4. 워크숍 일정

일 시		주요 내용	비 고	
11.7 (금)	14:00~14:30	30분	○ 입실 및 참가자 등록	
	14:30~15:00	30분	○ 워크숍 진행 계획 설명 ○ 참가자 소개 및 인사	
	15:00~15:30	30분	< 주제 발표 > ○ 대중성어종 수급 및 가격동향 조사 사업 추진 현황	KMI (수산업관측센터)
	15:30~15:45	15분	○ 휴 식	
	15:45~16:45	60분	< 토론 > ○ 대중성어종 조사사업의 효율성 증진 방향	전체
	16:45~17:00			
	17:00~17:30	30분	< 주제 발표 > ○ 수산물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한 가격안정대 도입 방안	해양수산부
	17:30~18:30	60분	< 토론 > ○ 가격안정대 도입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전체
	18:30~20:00	90분	○ 석식 및 휴식	
11.8 (토)	07:30~09:00	90분	○ 조 식	
	09:00~10:00	60분	< 자유토론 > ○ 수산물 수매비축 개선 방향 - 수매비축사업 관련 예산 및 품목 확대 방향 등	전체
	10:00~13:00	120분	○ 통영바다목장 견학	
	13:00~14:00	60분	○ 중식 및 퇴실	전체

5. 참석 대상자

소 속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과장	박성우	
"	유통가공과 사무관	김성원	
"	유통가공과 주무관	홍길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장	주문배	
"	수산업관측센터 부연구위원	백은영	
"	수산업관측센터 전문연구원	김수현	
"	수산업관측센터 전문연구원	성진우	
"	수산업관측센터 연구원	허수진	
"	수산업관측센터 연구원	하혜수	
수협중앙회	유통기획부 수매비축팀장	주규현	
"	유통기획부 수매비축과장	김정우	
강릉수협	판매과장	김상현	
속초수협	판매과 대리	염경태	
죽변수협	판매과장	황문형	
후포수협	판매과장	장무석	
구룡포수협	판매과장	박창수	
대형선망수협	유통사업과장	김동현	
기선권현망수협	지도경제상무	정창진	
"	판매사업과장	장재석	
"	판매사업과	박상현	
목포수협	판매과장	김창운	
한림수협	판매과	고봉남	
성산포수협	유통사업과장	강익준	
서귀포수협	판매과장	한예준	

II. 주제발표

대중성 어종 수급 및 가격 동향 조사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1) 사업의 필요성

- 기후 변화로 인한 수산물 수급 불균형 심화 우려
 - 기후 변화에 따른 수산물 생산물량 변화폭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수산물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수산물의 수급 불안정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해양환경 변화, 일본 방사능 유출 등 시장 급변에 따른 수급 변동성 확대
 - 연근해 생산물량의 변동폭이 크고(고등어, 갈치), 원양산 어황이 국내 공급을 크게 좌우(오징어, 명태)
 - ※ 고등어는 최근 10년간 최소 94,616톤, 최대 184,324톤이 생산되어 평균 생산량(136,855톤)의 -44.6~34.7%의 진폭을 가짐
 - ※ 갈치는 최근 10년간 최소 33,101톤, 최대 85,450톤이 생산되어 평균 생산량(62,928톤)의 -47.6~35.8%의 진폭을 가짐
 - ※ 오징어 및 명태는 국내 공급량의 50~100%가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의해 공급됨
- 해외시장 상황 또한 대중성 어종의 공급 및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음
 - 주변국 시장가격이 좋을 경우, 국내산 수출이 증가하여 국내가격이 동반 상승하거나, 해외 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산 수입 및 반입 물량이 감소할 수 있음
- 시장 이외의 요인에 의한 소비 급변 가능성 상존
 - 일본 원전 방사능 물질 유출 여파로 9, 10월 대중어 소비가 20~40% 감소하는 등 외부 환경요인에 의해서도 소비가 급변하는 등 수급 불균형 초래
- 주요 어종의 수급 상황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선제적 물가관리체제 구축 필요
 - 국내 수산물 소비 비중이 높은 어종을 대상으로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물가관리체제 구축을 통해 국민 경제의 안전성을 향상

2) 사업의 목적

- 대중성 어종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동향 조사 및 정책 지원
 - 주요 대중성 어종의 생산, 유통, 소비, 재고, 수출입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생산유통 및 수급 동향 모니터링 정보 제공
 - 기존에 실시해 온 정부비축사업 등 물가관리정책과 연계하여 선제적 물가관리체계 구축
 - 정보의 분석과 모니터링을 기초로 한 수급관리 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3) 기대 효과

- 대중성 어종의 가격안정을 통한 소비자 가계 부담 완화
- 대중성 어종의 모니터링을 통한 이들 어종의 장기적 가격 안정화 실현
- 정보 비대칭 해소를 통한 생산자, 유통, 도·소매업자의 경영 안정화 도모

2. 사업 경과

- 2011년 12월 : 대중성 어종을 대상으로 한 관련 사업 진행 의뢰(수산정책과)
- 2012년 5월 : 1차 시범사업 보고서 작성 및 보고(5월 전기)
- 2012년 7월 : 장관보고, 물가책임장관회의 - '13년 사업 도입 결정
- 2013년 1월 : 시범사업연도 연차보고서 작성 및 보고
- 2013년 1월 : 본사업 실시(4종 : 고등어, 오징어, 갈치, 명태)
- 2013년 2월 : 조기 시범사업 준비 및 생산 및 가격 동향 작성 및 보고
- 2013년 5월 : 주간 수산물 가격 동향 보고 시작(매주 금요일)
- 2013년 11월 : 대중어 사업 자료 공표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
- 2014년 1월 : 사업품목 확대(기존 4개 어종 ⇒ 6개 어종(고등어, 오징어, 갈치, 명태, 참조기, 마른멸치))
- 2014년 2월 : 주요 물가 관련 동향 보고 작성(생산자, 소비자물가지수)
- 2014년 10월 : 소금 가격 동향 주간 보고서 작성

3. 주요 사업 내용

1) 생산동향 모니터링

- 연근해 생산 : 전국 수협 일별 위판량(공동어시장,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포함)을 기준으로 추정
 - 추정생산량 = $\frac{\sum \text{일일 위판량}}{\text{최근 3년 계통판매비율}}$
 - 업종별 생산 동향 자료의 점검을 위해 주요 수협 위판량은 별도 집계
 - ※ 고 등 어 : 2개 수협(부산공동어시장, 부산시수협)
 - ※ 오 징 어 : 15개 수협(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죽변, 후포, 경주시, 구룡포수협, 서산수협, 진도군, 남해군, 삼천포, 성산포, 부산공동어시장, 부산시수협,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 ※ 갈 치 : 9개 수협(목포수협, 부산공동어시장, 여수, 마산, 서귀포, 성산포, 제주시, 한림수협)
 - ※ 참 조 기 : 10개 수협(목포, 한림, 추자도, 군산, 여수, 모슬포, 성산포, 제주시수협, 수협중앙회 인천공판장, 부산공동어시장,)
 - ※ 마른멸치 : 9개 수협(기선권현망, 부산시, 삼천포, 여수, 완도금일, 고흥군, 서천군, 서천서부, 보령, 대천서부수협)
- 원양 생산 : 원양어업정보 어종별 반입현황 일별 자료 집계
- 지역별 생산 동향 모니터링 강화

구 분	생 산
고등어	2명 대형선망수협, 부산공동어시장
오징어	7명 구룡포수협, 후포수협, 부산시수협,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원양산업협회, 아그네스수산
갈 치	5명 서귀포수협, 한림수협, 부산공동어시장, 성산포수협, 목포수협
명 태	2명 원양산업협회, 한성기업
참조기	3명 제주, 영광, 목포수협
마른멸치	6명 통영, 부산, 서천, 보령, 삼천포, 여수수협

※ 근해안강망은 부정기 자문

○ 어황동향

- 연근해 어업 생산 동향 : 주요 기관 어황 동향 자료 및 지역 자문 활용
- 주요 기관 : 국립수산물과학원 주간 어황동향 및 수협중앙회 어황방송

2) 가격 동향 모니터링

○ 산지가격 : 주요 수협 산지 출하 단가 활용

- 고 등 어 : 대형선망수협
- 오 징 어 : 부산공동어시장
- 갈 치 : 부산공동어시장, 서귀포수협
- 참 조 기 : 한림수협
- 마른멸치 : 기선권현망수협

○ 도매 및 소매가격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격 조사 자료 활용

- 고 등 어 : 신선·냉장, 선어 중품(마리당 30cm(마리당 350~500g)) 가격
- 오 징 어 : 신선·냉장, 냉동 중품(상자당 20~30마리(마리당 260~400g)) 가격
- 갈 치 : 신선·냉장 중품(전장 80cm, 1상자(10kg)당 30마리(마리당 330g)) 가격
- 명 태 : 냉동 중품(지대(21.5kg)당 32마리(마리당 670g)) 가격
- 참 조 기 : 마리당 80~100g 크기의 냉동품의 kg당 가격(대형소매점가격)
- 마른멸치 : 중멸(4.5~7.6cm) 평균가격

○ 해외가격 : 일본 현지 공시 가격 및 한국수산물무역협회 해외가격 조사사업 자료

- 고등어 : 일본 오사카중앙도매시장 공시 가격(1개월 격차)
- 오징어 : 일본 오사카중앙도매시장 공시 가격(1개월 격차)
- 갈 치 : 중국 통관시장 공시가격(당월 자료)
- 명 태 : 러시아 캅차카지역 도매가격(1~2개월 격차)

※ 기존 오사카, 츠키지 도매시장 공시자료를 이용할 경우 2개월의 격차가 있었으나, 2014년 10월부턴 오사카중앙도매시장의 자료를 오프라인으로 입수하여 정보격차 1개월 축소

○ 소매 동향 파악을 위한 대형소매점과의 협력체계 구축

- 이마트, 홈플러스(정기 자문), 롯데마트(부정기 자문)

- 대중어 6개 품목 이외에도 수산물 매출관련 자문 및 정보 제공 체계 구축

3) 수출입 동향 모니터링

- 관세청 및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자료(매월 15, 말일 기준 수출입 신고 자료)
- 해외선사 및 부산지역 수출입상사를 통한 부정기 자문
 - Korea Pelagic, OP INC, 뉴질랜드 명예수산물관 등

4) 재고 동향

- 전기 : 과거 평년 추이를 반영하여, 지난 기 추정량에서 가감
- 후기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냉동선어류 입출하동향 자료 이용

4. 성과와 반성

월 2회 격주보 발간

- 회당 1,600부 발행
- 어민들의 경우 수협을 통한 배포를 원칙으로 각 수협 판매과로 단체 발송하고 있으나, 점차 개별어업자에게 발송하는 것으로 변경 추진 예정

시범사업보고서 발간

- 참조기(10회), 마른멸치(2회) 시범사업보고서 발간

일일 수산물 가격 모니터링

- 수산물 수요 성수기 및 어한기 수산물 가격 일일 모니터링 실시
- 2014년 3회 실시(설(1월 16일~29일), 봄 어한기(5월 15일~30일) 추석(8월 12일~9월 5일)

□ 품목별 가격안정밴드 설정 관련 연구

- 평시, 주의, 경계, 위기의 4단계로 구분된 품목별 가격안정밴드 설정
- 설정된 가격안정밴드를 이용한 가격 단계 수준 제시
- 이상 신호 발생 시 즉시 보고 체제 수립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 체제 구축
- 향후 사업 도입 관련 연차별 계획 수립

□ 수급 급변 요인 발생시 긴급 대응체제 강화

- 대중성 어종의 수급 급변 요인 발생시 격주보 이외의 호외보 발행
- 설 호외보 발간

□ 소비관측 강화 필요

- 기존의 모니터 형태로는 정성적 분석만 가능
- 최근 일본 방사능 문제 등의 예를 볼 때 소비자의 태도 변화를 신속하게 체크하는데 한계
- 시장패널을 판매자 중심에서 소비자까지 확대 필요
- 소비자패널 구축을 통해 소비자의 수요 강도와 태도 변화를 체크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소비자패널 구축을 위한 설계 수행 중으로 12월 시범조사 실시 후, 2015년부터 정례화 예정

5. 향후 추진 계획 : 사업의 심화 추진

- 지난 2년간의 사업의 외연적 확대에서 내연적 확대 추진
- 소비관련 정보(수요, 가격)의 다양화로 정책 및 생산단계에 정보 제공기능 강화가 절실한 상황임

소비자정보 제공기능 강화

- 소비자패널을 이용한 수요측면 정보 강화
- 기존 격주보 이외에 소비자 수요의 변화와 관련한 다양한 분석정보 제공 예정

가격안정대 운영 관련 세부 조율 시행

- 가격안정대의 운영과 관련한 기능 강화
- 향후 품목 확대를 위한 산지 및 소비자가격 조사 품목 다양화 계획 수립

가격정보 다양화 추진

- 기존의 냉동, 신선가격 조사 및 공표
- 크기별, 등급별 다양한 가격을 조사하여 공표(보고서 외 다양한 방법 활용)

III. 주제발표

수산물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한 가격안정대제도 도입 방안

1. 수산물 수급 조절 정책의 필요성 및 현황

1) 필요성

- 수산물의 급격한 가격 변동은 생산의 불확실성, 생산과 소비의 계절성에 기인
 - 수산물의 생산은 기후 등과 같은 자연 조건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생산량과 생산되는 상품의 품질에 대한 예측이 어려움
 - 또한 생산이 특정한 시기에 집중되는 계절성으로 인해 공급요인에 의한 가격의 급등 또는 급락 가능성이 큼
 - 한편 명절과 같은 특정한 시기에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소비의 계절성으로 인한 가격 급등 가능성이 상존함
- 수산물 가격의 급등락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
 - 성어기의 급격한 생산 증가는 수산물 가격 폭락으로 이어져 생산자의 경영 악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반면, 수요 급등기에는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소비자의 가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고등어, 오징어, 갈치, 명태 등의 어종은 국내 수산물 소비 비중이 크며, 해양환경 변화, 국내외 시장가격 등 수급의 변동 요인이 매우 다양함
 - 고등어, 갈치의 경우 연근해 생산물량의 변동폭이 크고, 명태와 오징어는 원양산 어황이 국내 공급을 크게 좌우함
 - ※ 고등어는 최근 10년간 최소 94,331톤, 최대 187,240톤이 생산되어 평균 생산량(133,059톤)의 -29.1~40.7%의 진폭을 가짐
 - ※ 갈치는 최근 10년간 최소 32,526톤, 최대 85,450톤이 생산되어 평균 생산량(58,588톤)의 -44.5~45.8%의 진폭을 가짐
 - ※ 오징어 및 명태는 국내 공급량의 50~100%가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의해 공급됨

- 또한 이들 어종은 해외의 수급 및 가격 변화가 국내 공급 및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음
 - 주변국 시장가격이 좋을 경우, 국내산 수출량이 증가하여 국내가격이 동반 상승하거나, 해외 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산 수입 및 반입 물량이 감소할 수 있음
- 이에 주요 수산물을 대상으로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가격 수준별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국민 경제의 안전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2) 현황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소득과 가격 변동성 완화 정책으로는 수산비축사업, 수산물수매지원사업, 수산업관측사업, 자조금사업 등이 있음
 - 수산비축사업과 수산물수매지원사업은 주로 어선어업 생산물을 대상으로 하며, 수산업관측사업과 자조금사업은 양식수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음
 - 사업별 주체를 살펴보면, 수산비축사업과 수산업관측사업은 정부가, 수산물수매지원사업은 저장·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유통업자가, 자조금사업은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생산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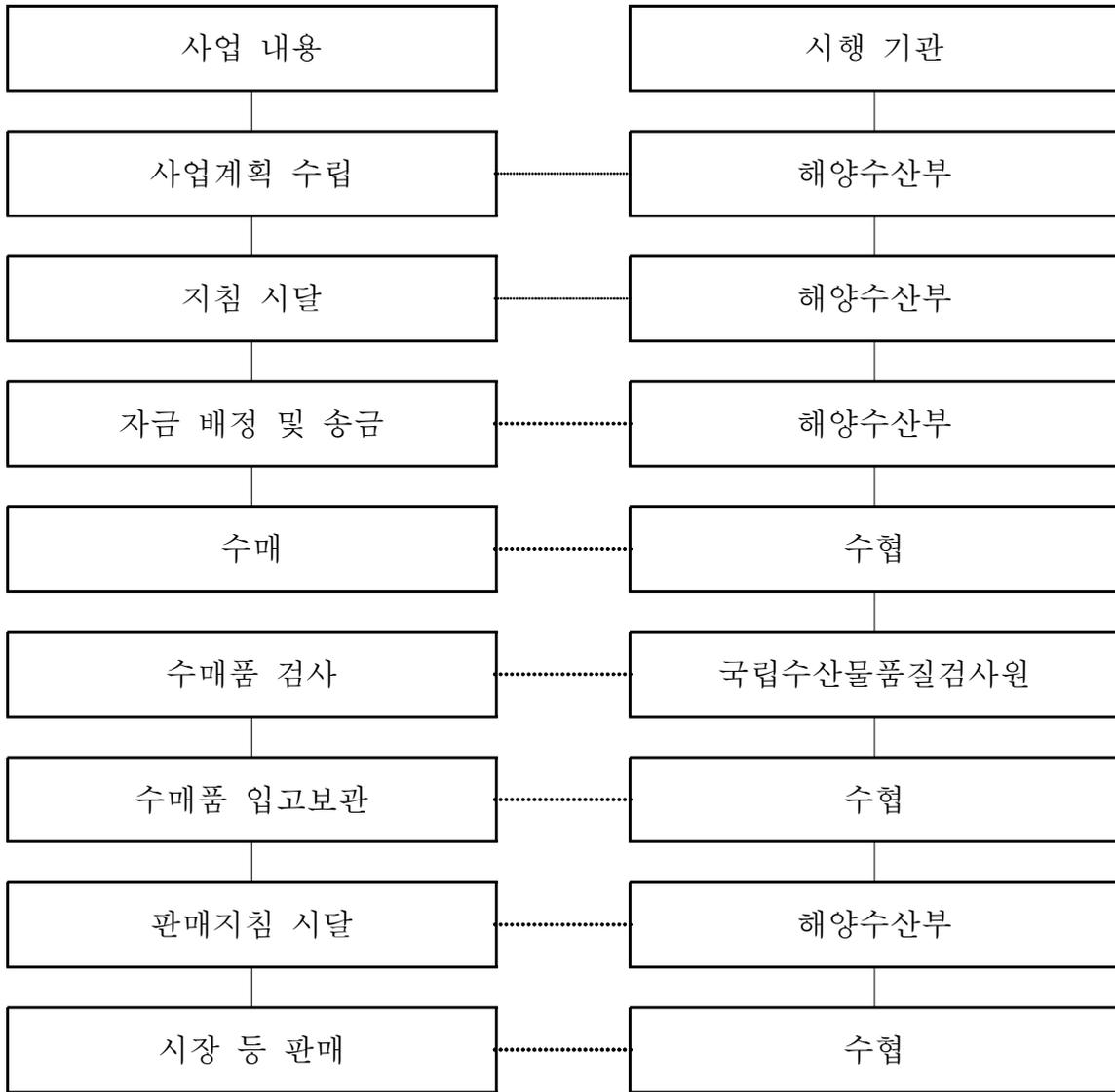
(1) 수산비축사업

- 수산비축사업은 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의 두 가지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주 생산시기에는 생산된 수산물을 수매·비축하여 비생산시기 및 성수기에 방출함으로써 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 주 생산시기에 생산된 수산물을 수매·비축하는 과정에서 대량 집중생산으로 인한 수산물의 산지가격 폭락을 예방하고 가격을 일정 수준에서 지지하여 어업인들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음
 - 수산물이 생산되지 않거나 소비가 많이 되는 성수기에는 비축된 수산물을 방출하여 소비자 가격을 안정시켜 소비자 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함

- 수산비축사업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수산업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산물을 비축하거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할 수 있음
 - 수산업법 제8장에서는 수산발전기금의 설치(제76조), 기금의 용도(제79조)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해 수산발전기금을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수산비축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수산비축사업에는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관별 역할과 사업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음
 - 해양수산부 : 사업의 시행주체로 구매 및 판매계획 수립과 시행, 소요자금 지원
 - 수협중앙회 : 사업의 대행주체로 세부 구매 및 판매계획 수립 및 시행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구매품 검사
- 수산물구매지원사업은 산지에서 수산물을 구매하여 수산물의 가격을 지지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저장·가공된 수산물을 적정시기에 판매함으로써 수산물의 가격안정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음¹⁾
 - 사업의 지원 대상은 수협중앙회, 지구별·업종별수협, 어촌계를 포함한 생산자 조직, 수산물 가공·유통업체 등임
 - 사업의 형태는 수산물 원료 구매와 가공구매 자금 용자로 구분되며, 25%의 자부담을 의무화하고 있고, 자금의 대출기간은 1년 이내임

1) 김광호 외, “수산비축 및 구매지원 사업이 수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 『해양정책연구』, vol.26 no.1(2011), pp129



<그림 1> 수매비축사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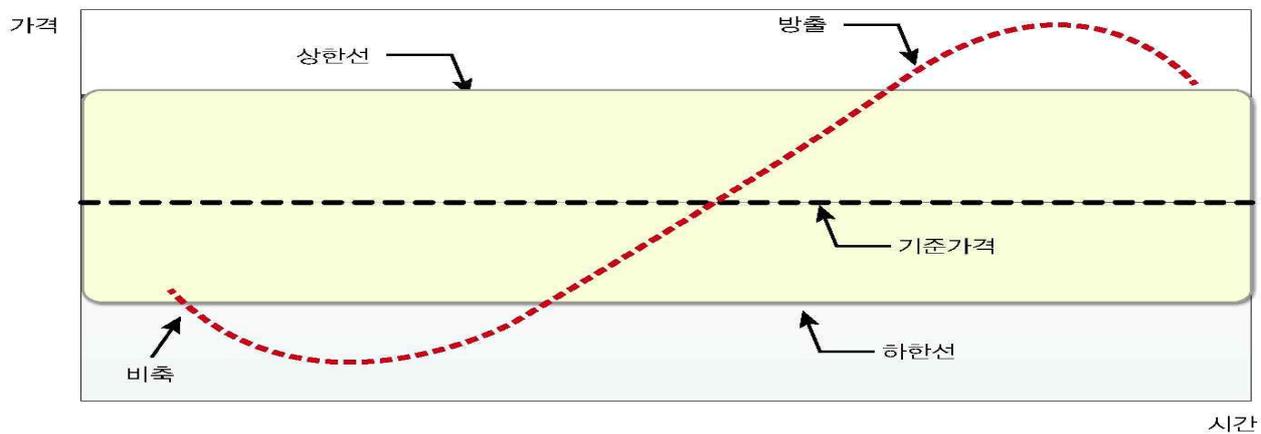
2. 가격안정대제도 운영

1) 주요 개념²⁾

- 수산물의 수급조절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 가격안정대제도(stable within the price range)는 수산물 생산의 계절성을 이용한 것임
 - 어떤 상품의 큰 폭의 가격변동을 막기 위해 그 상품의 가격 폭을 설정하고, 가격을 설정된 범위 내에서 안정시키려는 정부 또는 기타 국가기관이 행하는 가격 조작 수단임

2) 강종호, 「양식 광어의 생산자주도 공급망 구축방안 수립 연구」 2010. 12. p37~38.

- 특정 상품에 대한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이 상품의 가격이 설정된 최저가격을 하회하면 정부에서 이를 매입하여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함
- 이와 달리 상품의 가격이 최고가격을 상회하게 되면, 정부는 보유중인 상품을 방출하거나 수입을 통해 가격이 최고가격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는 정책임



< 그림 2 > 수산물의 가격안정대

- 수산물은 생산의 계절성이 뚜렷한 경우가 많음
 - 일부 어류와 전복양식을 제외하고는 생산의 계절성이 존재하여 계절적으로 출하가 집중되는 시기가 있으며, 이와 달리 생산이 되지 않거나 생산량이 급감하는 계절이 존재함
 - 또한 생산과 관계없이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가 존재하는데, 추석과 설이 가장 대표적인 시기임
 - 생산 집중기에는 공급 과잉으로 생산물의 가격이 급락하여 생산자 소득이 감소하며, 생산이 급락하는 어한기와 수요가 급증하는 수요 성수기에는 가격이 급등하여 소비자의 가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 가격안정대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격상한선을 정하고, 생산기반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생산자보호라는 측면에서 가격하한선을 정함
- 가격안정대는 저장성과 가격변동폭 모두를 고려해야 함

- 가격안정대를 운영하기 위한 품목을 선정할 때에는 생산의 주기성을 고려한 저장·보관 가능성을 판단해야 함
- 선정된 품목이 가격 급등시기와 생산 집중시기간의 시차만큼 보관될 수 없는 것이라면 가격안정대를 운영함에 있어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 다음으로 가격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할 때에는 연간 가격 변동폭과 생산의 풍흉을 고려하여 가격 변동폭을 설정해야 함

2) 가격안정대의 설정 및 운영

- 가격안정대는 기본적으로 가격의 상한선과 하한선의 2단계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이를 보다 정밀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계를 보다 세밀하게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정책 다양성의 측면에서 좋을 것임
- 따라서 가격상승과 하락에 대해 각각 4단계로 구분하고, 이에 대응하여 단계별로 정책을 집행하도록 설정하였음
 - 각각의 가격 방향에 대해 평시, 주의, 경계, 위기의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설정함
 - 평시단계 : 수급이 정상적이고, 가격 또한 평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상황
 - 주의단계 : 정상적인 가격의 범위를 벗어나 '경계'단계로 가기 직전까지로 가격 추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수급 상황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는 단계
 - 경계단계 : 가격의 상승과 하락이 심각해져 생산자와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기 시작하는 단계
 - 위기단계 : 가격의 폭등락으로 생산자, 소비자의 부담이 극심해져 시장의 자율조정기능이 상실된 상태
- 각 단계에 따른 가격 설정범위(안)는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으며, 최종결정은 수급관리위원회를 통한
 -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를 위한 가격 상

한은 소비자가격으로, 생산자보호 목적이 강한 가격의 하한은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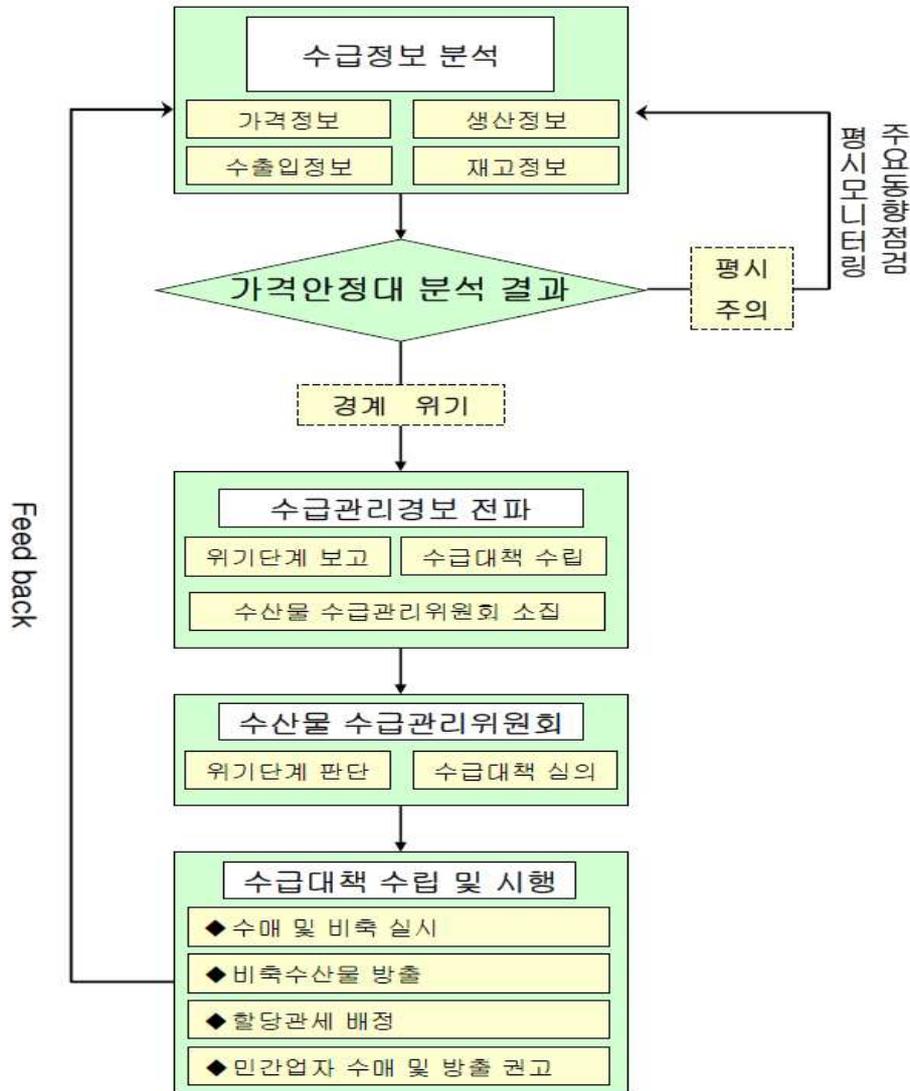
- 이는 산지가격 상승과 하락이 반드시 소비자가격 상승과 하락으로 연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의 경우가 나타날 수 있으며,
- 수매비축사업과의 정책 연계성 차원에서도 수매·비축은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방출은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임

< 표 1 > 수산물의 가격안정대

구분	범위
평시	최근 5년 월간 평균가격 ± 월별 표준편차 범위의 80%
주의	최근 5년 월간 평균가격 ± 월별 표준편차 범위의 100%
경계	최근 5년 월간 평균가격 ± 월별 표준편차 범위의 150%
위기	최근 5년 월간 평균가격 ± 월별 표준편차 범위의 200%

○ 가격안정대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음

- 평시단계 : 가격과 수급 모니터링 정상체제 운영(월 2회)
- 주의단계 : 가격과 수급 모니터링 정상체제 운영(월 2회) 및 비축 물량 점검 등 수급 상황 전반에 대해 점검 실시
- 경계단계 : 비축물량 방출 및 생산, 가격, 재고 등 점검 기간 단축
- 위기단계 : 수산물수매지원사업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물량 매입/방출 권고, 수입 촉진



< 그림 3> 수산물 가격안정대에 의한 수급 조절 체계

3) 수급관리위원회

- 수급관리위원회는 수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 주체의 합의에 의한 수산물의 수급조절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직임
- 구성은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학계, 정부인사 10~20명으로 함
- 역할은 ①수산물의 수급대책 등에 대해 품목별 수급 전망 및 위기단계를 판단하고, ②수급조절대책과 관련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며, ③수급안정대책의 적절성을 심사하고, ④이해관계자간 이견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4) 연차별 추진계획

-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가격안정대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특종 어종을 다양한 어법을 통해 어획하기 때문에 다양한 품질이 존재한다는 것임
 - 갈치를 예를 들면 채낚기와 연승 등 낚시어법으로 어획된 갈치와 유자망, 안강망으로 어획된 갈치, 트롤을 포함한 저인망으로 어획된 갈치로 크게 분류할 수 있음
 - 통상 은갈치라고 불리는 낚시어법으로 어획된 갈치 또한 선어와 냉동으로 나뉘는 등 어법 및 상태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매우 큼
- 따라서 가격안정대의 운영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가격안정대를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운영될 수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품목을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선정된 품종은 어획형태가 단순한 어종 1, 대표어획방법이 다양하지만 비교적 품질이 단순한 어종 1, 당장 도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종 1로 구성하였음
 - 어획형태가 비교적 단순한 어종으로는 전체 어획량의 94.0%를 대형선망에서 어획하고 있는 고등어가 적합함
 - 다양한 어법으로 어획되면서 비교적 품질이 단순한 어종으로는 오징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어종으로는 명태가 적합함
- 어종의 선정에는 가격안정대 운영에 필요한 가격자료가 현재 가용한지도 고려되었음
 - 갈치, 삼치, 참조기 등은 냉동품에 대한 객관적인 소비자가격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도입이 어려운 상황임

< 표 1 > 연차별 가격안정대 도입 품목

구 분	2015년	2016년	2016년 이후	비고
어종	고등어 오징어 명 태	마른멸치	참조기 삼치	

5) 기존 수매비축사업과 병행 추진

- 가격안정대에 의한 수매·비축 또는 방출은 정기적으로 일정량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님
- 따라서 기존의 수매비축 방식과 가격안정대제도의 적절한 혼용이 필요함
- 연차적 진행에 따라 비율을 조절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기존의 수매비축사업과 가격안정대제도의 비율을 7 : 3으로 하여 운영
- 가격안정대제도 운영에 필요한 물량이 소진되면, 수급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추가 배정
- 매해 10월 가격안정대제도 소진율을 파악하여, 소진이 부진할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에 배정

6) 수산물 가격조사체계 재구축 필요

- 가격안정대 운영을 위해서는 품목의 산지 및 소비자가격 조사체계 구축이 필요함
- 기존 aT의 경우 소비자가격을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가격을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음
 - ※ 냉동수산물의 경우 고등어, 명태, 오징어의 가격을 제공하고 있음
- 산지가격은 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산지수협과 가격안정대 분석기관과의 실시간 정보교환 체계 구축과 신규도입품목의 소비자가격 조사체계의 수립이 필요함

3. 가격안정대 운영

1) 고등어

□ 수급 관련 특징 및 도입 가능성 검토

- 고등어는 생산의 계절성이 가장 뚜렷하게 발생하는 어종임
 - 고등어는 생산량의 94.0%가 대형선망어업에 의해 어획되고 있으며, 연간 생산량의 72.8%가 9~12월에 집중되며, 3~7월에는 연간 생산량의 5% 미만의 물량이 어획되고 있음

< 표 2 > 최근 5년 고등어 월평균 어획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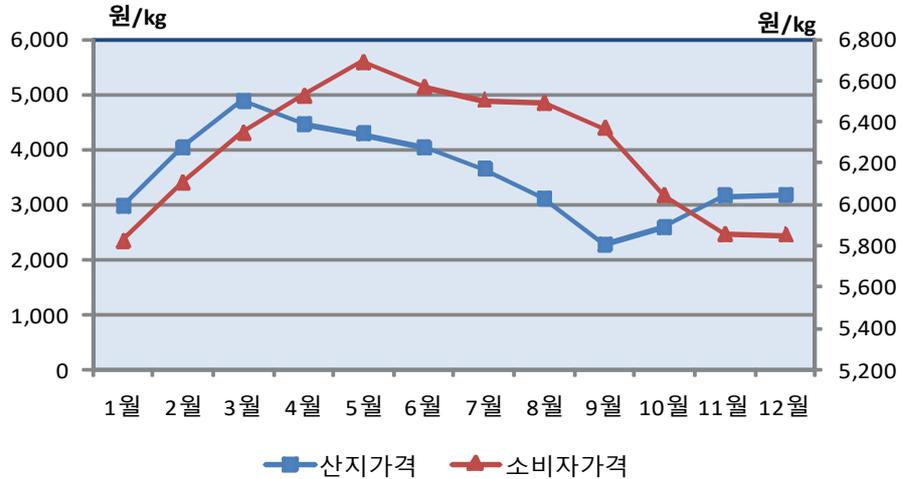
(단위: 톤,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합계	14,120	6,426	4,213	1,568	2,436	3,207	4,609	9,968	17,335	23,189	14,998	17,305	119,374
비율	11.8	5.4	3.5	1.3	2	2.7	3.9	8.4	14.5	19.4	12.6	14.5	100.0

자료: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 어업생산통계를 재가공

- 특히 45월은 대형선망어업의 자율적 휴어기가 포함되어 있어 어획량 비중은 2% 이하로 떨어지게 됨
- 고등어 생산량이 적은 5월 소비자가격 최고, 생산이 많은 9월은 산지가격 최저 수준
 - 고등어가격은 생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가격이 큰폭으로 변화하는데, 소비자가격의 경우 가격이 가장 높은 시기는 생산량이 적은 5월이며, 생산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 9월에는 산지가격이 가장 낮게 형성됨
 - 산지가격은 월평균 0.851, 소비자가격은 0.448의 진폭계수³⁾를 보이고 있어 평균가격의 각각 ±42.5%, ±22.4% 정도의 월간 가격 변화폭을 보여주고 있음

3) 평균가격 대비 가격의 진폭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진폭계수 = (최대값-최소값)/평균값



주 : 산지가격은 신선·냉장고등어의 위판가격이며, 소비자가격은 냉동고등어 가격임
 자료 : 수산업관측센터 「대중성 어종 수급 및 가격 동향」, 각 호 참조

< 그림 4 > 최근 5년 평균 고등어 산지 및 소비자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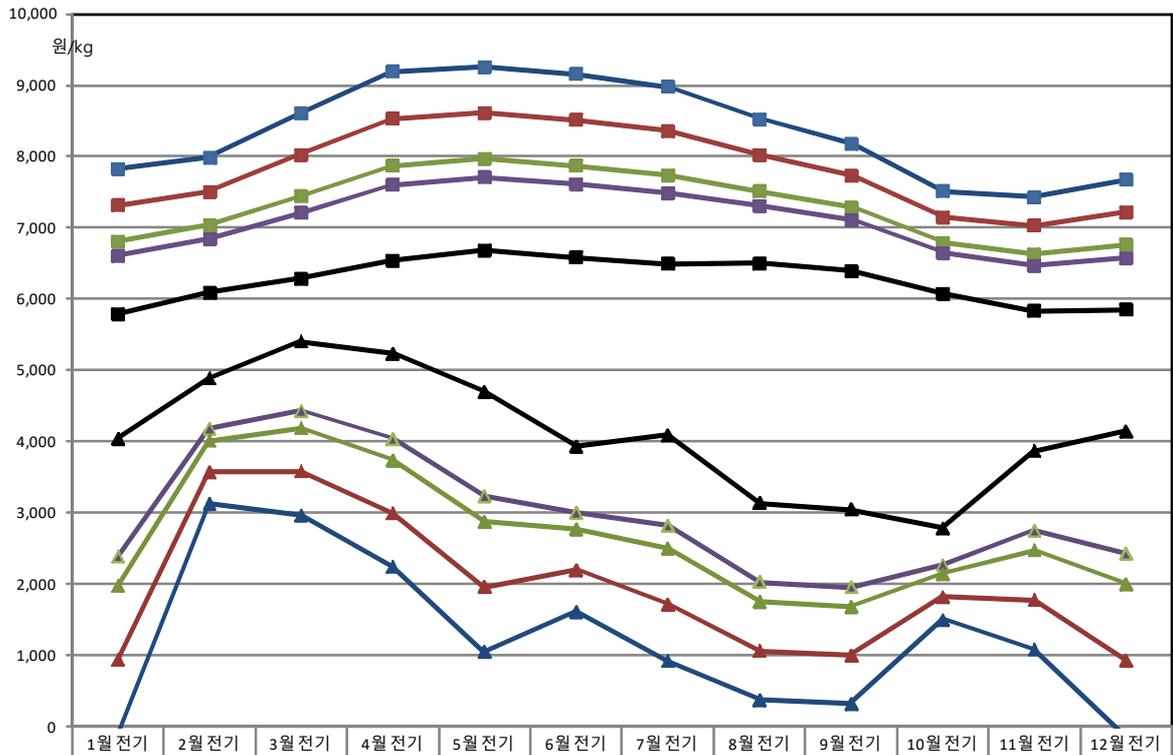
- 이론상 평균비축기간 9개월가량이 소요되며, 냉동보관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음
 - 주생산시기는 9월~이듬해 1월까지이지만, 냉동으로 보관하는데 좋은 상품은 10월~1월까지 생산되는 것을 감안하면, 어한기 높은 가격이 유지되는 5월~9월까지 최단 6개월, 최장 1년 평균 9개월 정도의 보관이 필요함
 - 가을철 주어획기에 생산되는 고등어의 경우 12개월 이상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안정대를 이용한 수산비축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무리가 없음

□ 가격안정대 시뮬레이션 결과(최근 5개년)

- 적용가격 : 산지가격(부산공동어시장 위판가격), 소비자가격(aT 조사가격)
- 구간별 실제 빈도

	소비자가격		산지가격	
	빈도(회)	비율(%)	빈도(회)	비율(%)
평시	49	81.7	45	75.0
주의	1	1.7	8	13.3
경계	5	8.3	5	8.3
위기	5	8.3	2	3.3
합계	60	100.0	60	100.0

○ 고등어의 가격안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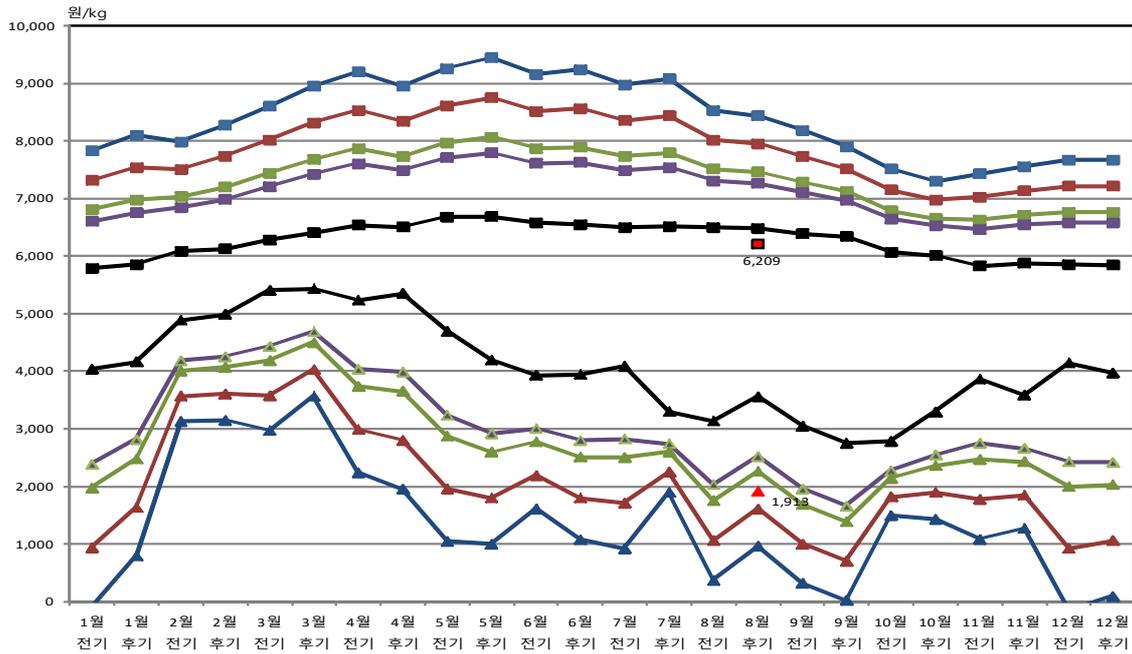


	1월 전기	2월 전기	3월 전기	4월 전기	5월 전기	6월 전기	7월 전기	8월 전기	9월 전기	10월 전기	11월 전기	12월 전기
위기	7,828	7,983	8,600	9,195	9,259	9,156	8,978	8,526	8,179	7,510	7,428	7,672
경계	7,318	7,509	8,021	8,532	8,615	8,512	8,358	8,019	7,732	7,151	7,028	7,217
주의	6,809	7,036	7,442	7,868	7,970	7,868	7,737	7,512	7,285	6,791	6,629	6,762
평시	6,605	6,846	7,211	7,603	7,713	7,611	7,488	7,309	7,106	6,647	6,469	6,579
평시소비자가격	5,790	6,088	6,285	6,541	6,681	6,580	6,495	6,498	6,391	6,072	5,829	5,851
평시산지가격	4,038	4,885	5,404	5,233	4,694	3,933	4,090	3,135	3,045	2,784	3,863	4,141
평시	2,382	4,182	4,430	4,036	3,234	3,003	2,820	2,027	1,953	2,269	2,749	2,424
주의(-)	1,968	4,007	4,186	3,736	2,869	2,771	2,502	1,750	1,680	2,140	2,470	1,994
경계(-)	933	3,567	3,577	2,988	1,956	2,190	1,709	1,058	997	1,819	1,774	920
위기(-)	-102	3,128	2,968	2,240	1,043	1,609	915	366	314	1,497	1,078	-153

□ 가격안정대 진단

- 고등어의 경우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상한선과 하한선을 각각 소비자가격과 산지가격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따라 가격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음
 - 먼저 가격의 하한은 산지가격으로 상한은 소비자가격으로 설정하되, 수매·비축사업이 냉동고등어를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비자가격은 냉동고등어의 kg당 가격으로 하여 설정하였음

- 8월 후기를 기준으로 할 때 고등어 산지가격은 평균가격과 최근 5년간 표준편차의 100% 수준을 밑돌고 있어 경계단계에 있으며, 소비자가격은 최근 5년 평균가격을 밑도는 평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가격안정대를 기준으로 수산물수급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고등어 비축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에 있음



< 그림 5 > 고등어의 가격안정대

